

【 해외금융 뉴스: 북미 】

미 연방예금보험공사, 생보사 자산유보계정에 우려 표명

- 미 연방예금보험공사(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는 보험회사들이 자산유보계정(Retained Asset Account)에 대해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는지의 여부를 조사하고, 동 계정이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를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공시하도록 촉구함.
 - 자산유보계정이란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즉시 지급받지 않고 보험회사에 예치하는 제도이며, 자산유보계정에 예치된 금액은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를 받지 못함.
 - 연방예금보험공사는 1차 검토 결과 많은 소비자가 자산유보계정이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를 받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지적함.
 - 연방예금보험공사 사장 셰일라 베어(Sheila Bair)는 보험회사는 자산유보계정이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를 받지 못함을 보험계약자와 보험금 수령자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함.
 - 블룸버그에 따르면 자산유보계정 예치금은 28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산유보계정 예치금의 투자수익이 투명하게 공시되지 않는다는 점도 논란의 대상임.
- 지난 17일 보험감독관 협의회(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Commissioners)가 개최한 미팅에서 보험회사들은 자산유보계정이 오랜 동안 문제없이 유지되어 온 제도이며 이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도 거의 없다고 주장함.
 - 메트라이프의 부사장 토드 카츠(Todd Katz)는 자산유보계정이 보험금 수령자에게 보험금 수령 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하며 적절히 감독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이번 논란은 언론의 부정확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함.
 - 그는 또한 예치금에 제공되는 이자가 다른 자산관리 계좌에 비해 높은 수준이며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예치금의 투자 정보는 이미 공개되어 왔다고 주장함.
 - 예금보험의 대상이 아니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주(州)보증 기금을 통해 지급이 보장되고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의 파산 시에도 지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자산유보계정을 통해 보험금 수령자는 수표를 발행할 수도 있으며 목돈이 필요한 시기까지 보험금 수령을 유보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유익한 옵션이라고 강조함.

(AM Best 등, 8/16)